

“의석수 감축, 전북 홀대 결정판”

두세훈·박준배·신원식·이덕춘 등 도내 총선 출마예정자들, 선거구 확정안 폐기 촉구

“전북 홀대하는 전북 국회의원 9석 선거구 확정안을 폐기하라.” 내년 총선에 나설 전북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최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조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안을 폐기하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두세훈(완주·진안·무주·장수), 박준배(김제·부안), 신원식(전주갑), 이덕춘(전주을) 등 출마예정자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먼저 이번 확정안은 전국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의 변화(현행 253개)는 없으나, 전북과 서울에서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이 늘었고,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이 의석수가 감소했다고 했다.

출마예정자들은 그러면서 “이러한 의석수 축소는 새만금 예산 삭감 시도에 연이은 전북 홀대의 결정판이다”이라며 “의석수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스럽다”면서 선거구 확정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지방을 배려해야 함에도 수도권에 의석수를 추가하고 지방의 의석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의 대부분 지역구가 농업을



이덕춘(전주을, 사진 왼쪽부터)·박준배(김제·부안)·두세훈(완주·진안·무주·장수)·신원식(전주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조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의석 감소는 농업 대표성 약화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수 감소는 전북의 정치력 약화로 이어져 새만금 사업과 같은 지

역 대형 국책사업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될 것도 우려했다.

두세훈·박준배·신원식·이덕춘 출마예정자들은 “지방 소멸 대응과 더

이상의 전북홀대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북 국회의원 9석 선거구 확정안을 폐기하고, 현행 선거구 10석을 사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도비로 지원’

문승우 도의원, 조례안 발의
도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 4)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전북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지원 공고 하도록 했다.

그밖에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데, 특히 HUG주택도시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시장이 부족한 20, 30세대 혹은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기준 도내 전세사기피해 상담·접수창구에 접수된 피해는 총 153건이며, 피해금액 102억원에 이른다. 신고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국가예산 회복 통해 도민께 희망 전달”

전북도, 위룸 전략회의
김 지사, 지휘부 중심
막바지 총력 대응 주문

전북도가 7일 서울 국회 협상 위룸(War-Room) 상황실에서 국가예산확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위룸 회의 이후 9개 실국별 증액제기사업에 대한 기재부 중심 활동상황 및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위룸이 본격 가동되고 한달여간 많은 분들을 만나 전북현안사업과 국가예산확보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무거운 짐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통과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국가예산 증액



7일 서울 여의도 전북서우본부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국가예산확보 위룸 전략회의를 갖고 있다.

활동에 총력을 다하자”고 했다.

더불어, “현재, 기재부 예산실에서 증액제기사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주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며, “내년도 국가예산 특히 새만금예산 회복을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과 이차전지특화단지의 탄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본격 가동된 서울 위룸은 현재 도지사와 행정·경제부 지사가 번갈아 상주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국가예산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지방보조금 눈먼 돈 아닌 ‘혈세’”

한경봉 군산시의원 “보조금 지급 기준 철저히 마련돼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 등을 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고 바로 혈세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실한 지방보조금을 폐지·삭감 및 통폐합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는 치명적인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게 웬일이냐”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통 군산시협의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는 ‘충격’, ‘경악’ 그 자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나무와 트리에 뜬 개뿔을 입히고 차를 마시면 평화통일이 되냐”며 “2021년 ‘손뜨개 평화 트리 점등식’ 실 값으로 250만 원을 지출했고, 2022년 ‘은빛 평화의 길 지정 기념식’ 실 값으로 168만8,000원, 다도체합비용으로 70만원을 군산차인회에 지



급했는데 (구) 시청 광장의 트리와 은파호수공원 나무에 옷을 입히고, 다도 체험하는 것이 평화통일 자문이나, 2021년 트리 점등식에 사용했던

손뜨개 제품을 세탁해서 2022년 평화의 길에 재사용해 놓고 실값을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고 성토했다.
또한 “‘실종신고가 필요한 참석자들’이라며 분기별 회의와 각종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의 명단만 있을 뿐, 참석자 서명은 없었다”고 지적했고, 이어 “2021년 11월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눔의 보조금 지출은 약 2백 9십만 원인데 김장김치를 제공받은 주민에 대한 내역과 서명도 없으며 도대체 누구에게 김치를 나눠 주었던 말이나”고 성토했다.
이어 “수해 복구지역 봉사활동은 8

월 17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18일 오후 3시에 식사비를 지출했고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 때도 계획에도 없는 저녁식사를 하고 이를 행사비 내역으로 위장해 지출했다”고 설명하면서 “바다 그림에 흘린 혈세는 어찌하여 2021년 평화통일 행사에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출했는데 바다 그림에 330만 원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2023년 보수 공사에 100만원을 지출한 걸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임되는 남비백’에 유감으로 백우경 민주평통 군산시협의 회장은 2019년에 이취임식 비용으로 380만3,200원, 2021년도 이취임식 비용으로 293만5,000원 총 673만8,200원의 보조금을 지출했다”며 “2021년 당시 코로나 거리 두기 강화 방역지침에 반하여 호텔 2개 홀 대관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회장을 연임하는데 굳이 290여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잖나, 거기다 현 군산시의회 의원이 대표로 운영하는 미다원에서 식사대용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보조금’ 집행 대책을 마련하고 강경하게 특별감사와 수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김 지사,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유치

간절함·진정성 통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유치 의사... 1년만에 결실
해외 상의 등과 교류협력 등 네트워크 강화가 주요

“한상대회에 미처있는 김관영입니다!”

2022년 11월 1일, 울산에서 열린 세계 20차 한상대회(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 리셉션. 무대에 오른 김관영 도지사는 대회 유치의 열망을 강력히 한 문장으로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날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현장을 찾아 60여개국 한인 경제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유치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의 강력한 유치 의지는 울산대회에 참석한 한인 경제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한상대회 유치를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3천 명이 넘는 재외 경제인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전북 경제 영토를 해외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지사는 대회 유치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해외 출장길에 오를 때면 미국 한인사회와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북산 제품의 수출길 확보, 확대와 함께 현지 상공회의소 및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 등과 다양한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해 경제교류 기반도 탄탄히 다졌다.

김 지사의 행보는 강력한 경쟁지 등장으로 한때 고전을 겪었다. 대회를 책임지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되면서 재외동포청이 동지를 튼 인천이 전격적

으로 유치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영위원들의 교체로 개최지 결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인천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진 것은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김 지사는 특유의 돌파력과 진정성으로 막판 세(勢) 결집에 나섰다. 한상대회 사상 최초의 해외 대회로 치러진 제21차 대회(미국 오렌지카운티, 에너허임 컨벤션센터)에 직접 날아가 현지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하루에 10여명의 운영위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전북의 경쟁과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김 지사의 유치 활동은 개최지 결정 하루 전까지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운영위원들에게 직접 문자와 통화를 하고 가능하면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 물밑 설득에 나섰다. 그리고 울산에서 시작된 김 지사의 유치 레이스는 결국 1년 만에 유치 성공으로 마무리됐다.

유치전 비화를 뚫는 절판에 김 지사는 ‘BTS’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사석에서 만난 미국 위원들에게 “세계적인 그룹 BTS를 만든 방식이 대표가 전북 남원 출신이고,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은 완주 오성현옥마을은 아이들의 성지가 됐을 정도로 전북은 K-컬처의 고장이자 창의적 도시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잘 사는 전북, 잘 사는 전주”

이덕춘 민주 정책위 부의장, 전주를 재도전

이덕춘(47)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를 지역구 재도전에 나선다.

이 부의장은 7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탄핵! 이덕춘은 행동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부의장은 먼저 “이번 22대 총선 전주시를 출마는 지나치게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바꾸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이 ‘논 때르니 후진국 되었다고 말하는 나라, 하루아침에 정치·외교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마저 무너져 내리는 나라, 정치를 하라고 뽑았더니 군림을 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해 최선봉에서 서서 치졸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지금 우리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민생과 경제”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못하면 지역정치권이라도 나서야 한다. 땀땀을 내서라



도 지역에 돈을 돌게 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숨통이라도 트여야 한다”며 잘 사는 전북, 잘 사는 전주를 약속했다.

그는 “삼천, 효자, 서신 주민들과 함께 서부권 교통문제를 필두로 7대 개선타기 추진해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전주 시민과 함께 학생, 어르신 무료버스 추진 등 6대 사업을 추진해 상생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뉴스스

“익산-군산 통합 100만 도시 비상”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민주당 소속 익산감 출마

고상진 (49)익산발전연구원장이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서는 고 원장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현재의 정치 상황을 민주당의 붕괴라고 지적하며 “정의를 하려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인간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뒤 새로운 익산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뉴스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는 ‘익산-군산 통합’으로 ‘100만 도시 비상’을 내세웠다. /뉴스스